



준비와 목탁

이상연 기자

un82@buddhapia.com



### ‘신도품계’ 이게 뭐 소리?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불교계가 그랬다. 그동안 불교계는 체계적인 신도조직에 대한 중요성도, 필요성도 인지하지 못했다. 조계종만해도 1994년 종단개혁 이후 3원 체제를 통해 포교원이 들어선 후 해야 효율적인 포교와 신도 교육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웃종교의 조직적인 신도활동에 자극 받은 까닭도 있다.

조계종 포교원이 신도조직화와 신도기본교육을 통한 신도 양성사업을 시작한 것은 1999년. 사업진행 후만 10년이 흘렀지만 기본교육부터 지도자교육까지 일관된 체계는 마련되지 못했다. 신도교육과 관련된 신도법들은 시행이 중단되는 등 답답상태에 머물렀다. 그랬던 포교원이 얼마 전 2009년 종단 핵심사업으로 ‘신도의 등록 및 교육 등 신도정책 개선사업’에서 신도품계제도까지 발표했다.

신도품계제도는 신도등록부터 지도자교육 등 단계별 교육과 수행 경력에 따라 신도들을 ‘발심(發心)’, ‘행도(行道)’, ‘부동(不動)’, ‘선혜(善慧)’ 등의 품계지위로 나누는 제도다.

포교원 신도국은 “단계별 교육과 수행이력을 바탕으로 신도품계를 품수함으로써 신도위

의를 갖춘 물론 신도간 위계 또한 정립해 수행활동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도 품계지위에 따라 휘장과 배지 등의 전담로 자긍심을 부여하면 종단 신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현재 신도조직의 근간인 신도회의 회장·부회장·총무·평신도 등 전통적인 관료제와도 별다른 것이 없어 보인다. 10여 년 간 조계종 등록 신도 수는 40여만 명. 신도중에 혜택을 듬뿍 받았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나서야 신도등록수가 늘기 시작한 요즘이다. 서열을 매기지 않아도 동참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도 등록의 문턱만 높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계급제인 카스트(Caste)제도 등 차별에 맞서 출가수행을 했다. 부처님이 엄화미소 등으로 심인(心印)을 전한 것은 서열과 위계가 아니었다. 행자였던 육조혜능 스님이 수제자였던 신수 스님을 제치고 오조홍인 스님에게 의발을 전해 받은 것도 마찬가지다.

2500여 년 불교사 속에서 부처님 말씀을 담은 경전도 사자전승의 순서를 매기지 않았다. 하물며 조계종 포교원의 종책에 신도의 서열을 매길 권리와 안목이 있을까.

## 인준·결산 등 ‘하룻만에 속전속결’

### 조계종 중앙총회 181회 임시회 개최... 덕승총림 방장 설정 스님 추대

조계종 중앙총회 임시회가 덕승총림 방장 설정 스님 인준 등 인사건과 중앙총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 등을 처리하고 하루 만에 폐회했다.

중앙총회(의장 보선은 8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81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제직 81명 중 62명이 출석한 총회에서는 2008년 중앙총무기관 결산 승인을 비롯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총림학교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특별구족제 시행 중지 촉구 건의 등 3건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총회(의장 보선 스님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중앙총회는 중흥종법 개정의 종단의 새로운 수장을 선출해야 할 막중한 임정이 잡혀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 △총무원장 재임실 일축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2달 여 남은 임기 동안 할 일은 후임 총무원장 선출과정을 여법하게 관리하는 것”이라며 잔여임기 동안 총무원장 선거 감독에 치중할 것을 밝히며, 끊임없이 제기되던 총무원장 재임실을 일축했다.

#### △예산안·결산 등 통과

처음 상정된 ‘불기2552(200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중앙총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통과과정에서 건립중인 전법회관을 두고 예산전용에 대한 범해 스님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의장스님이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은 범해 스님의 문제제기를 지적사항으로 남기고 승인하자”고 제안해 원안대로 통과됐다.

#### △교역적 특별구족제 참여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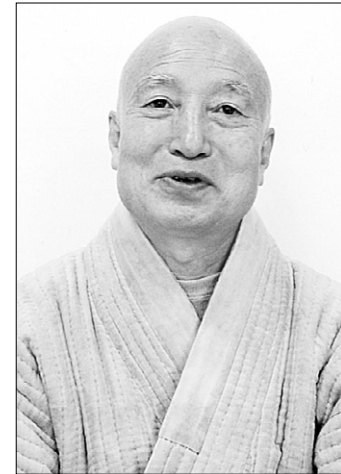
이번 총회 개최 직후 안건조정 과정에서 ‘2009년 특별구족제 시행 중지 촉구 건의’가 긴급 상정돼 격론 끝에 철회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같은 날 양산 통도사 금강계단에 서 실시한 특별구족제의 참가자 55명 가운데 현직 종회의원과 부장급 교역자 총무원 등 3인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을 두고 장시간 격론이 오갔지만, △특별구족제를 신청한 스님 3인에게 신청철회를 촉구하고, △호법분과위에서 해당 종회의원스님의 자격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중흥종법특위에서 관련법을 보완하는 것으로 ‘특별구족제 시행 중지 촉구 건의’는 결국 철회됐다.

#### △인사건 모두 인준

‘덕승총림 방장 설정 스님 인준 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등 인사건은 모두 인준됐다. 덕승총림 방장 인준을 받은 설정 스님은 1942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나 1955년 13세 수덕사에서 원담 스



덕승총림 방장 설정 스님.

님을 은사로 동진출가 했다. 해인사 강원을 마치고 범어사 선방 등에서 수행했다. 수덕사 주지, 조계종 개혁회의 법제위원장, 제11대 중앙총회 의장 등을 역임하는 등 수행과 총무행정, 포교에 두루 능통해 지난 4월 산중총회에서 방장으로 추대되고 중앙총회 인준만을 남겨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출의 건’과 관련해 임기만료된 진기·범어 스님 후임에는 각각 무공·선광 스님의 선출과 적광 스님의 재선출이 통과됐다.

‘총림학교관리위원회 선출의 건’은 성지 스님 후임으로 성호 스님과, 법안 스님 후임으로 승언 스님 선출이 인준됐다.

‘재신회계위원회 선출의 건’에는 임기만료된 세민 스님의 재선출이 통

과됐다. ‘법규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과 관련해 천제 스님 후임으로 경선 스님이 선출됐다.

‘홍천사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보선의 건’에는 홍천사 주지 해일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학교법인 동국대 감사후보 추천 동의의 건’에는 성월 스님 후임으로 진만·일문 스님의 추천이 동의됐다.

#### △별민자 재심사 특위 구성

원로의원스님들의 관심이 컸던 별민자 사면 복권건은 보인 스님 등 다수의 스님들이 “원로의원스님들 뜻을 받들어 별민자 재심사를 위한 제도개혁 특별조치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해 특위 구성이 통과됐다.

‘승랍기산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국가 및 지자체 등에 기부체납한 사찰의 종단환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선거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모두 통과됐다.

하지만 총무원측이 제출한 ‘불기 2553(2009)년도 사면, 경감, 복권 동의의 건’은 투표결과 찬성 16표, 반대 36표로 부결됐다.

한편, 이번 회기 주요안건으로 예정됐던 해남 스님(통도사 율원 율주)의 교육원장 선출의 건은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7일 철회요청서를 중앙총회사무처에 제출해 안건에서 제외됐다.

조동성 기자 cetana@buddhapia.com

### 불교계 보안 시급

#### 조계사 전산망 해킹

최근 D-DOS 공격에 의한 국가 주요 사이트 마비 등 전산보안에 대한 관심이 몰린 가운데 서울 조계사 전산망이 해킹되는 등 불교계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 조계사와 IDC센터 가비아 등에 따르면 조계사 내부시스템이 7월 초 해킹을 당해 4시간 가량 홈페이지 접속이 차단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불교계에서 내부시스템에 해커가 침입한 것은 이제적으로 내부시스템 중 총무행정프로그램 ‘넵스’에는 10만 여 조계사 신도의 주소와 생년월일, 기도비용 기록 등의 정보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사는 8월 11일 “신도정보 유출은 없었으며, 현재 보안단계를 높이고 특정IP만 접속할 수 있도록 보안강화조치를 취했다. 또 추가 공격에 대비, 기존 자료의 백업을 보다 짧게 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계에서는 해커가 침입 기록을 모두 삭제해 자료 유출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고, 재침입을 위한 소스를 남겨두었을 가능성을 들고 있다.

관련전문가들은 “특히 핵심정보를 담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 전산시스템의 경우 인사, 회계 등 17개 중무프로그램,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총무원이 2명에 불과하다”며 “본말사 실정은 더욱 심각하다. 종단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전산보안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특정종교 등 불교 음해세력의 소행일 것이라는 추측도 내놓고 있다. 노덕현 기자

##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전격 사임

### 9월 7일 차기 총무원장 선출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이 전격 사임했다. 태고종 중앙총회(의장 인공)는 8월 11일 종본사 봉원사에서 제98회 임시중앙총회를 열어 총무원장 운산 스님의 사표를 수리하고 총무원수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중앙총회는 총무원장 직무대행체제를 출범시키고 9월 7일 개최하는 중앙총회에서 차기 총무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무원장직무대행에는 중앙총회의장 인공 스님과 중앙사

정원장 월운 스님이 공동으로 선임됐다. 또 총무원 총무인수위원회는 중앙총회 부의장 대은 스님(인천교구총무원장) 등 총 35명으로 구성됐다. 중앙총회는 또 행정부원장 지홍 스님 이하 부장 및 실장, 중앙선관위원장 일운 스님의 분회의 추진반대를 결의했다. 총무원장권한대행 인공 스님과 월운 스님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태고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월운 스님(왼쪽)과 인공 스님.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지덕을 갖춘 후임 총무원장을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글=김성우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범어사 일제 잔재 청산 작업 들어가 부산 범어사(주지 정여가 일제에 의해 왜곡된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8월 13일 오전 범어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주지 정여 스님 등이 보물 제250호인 3층 석탑의 원형을 복구하기 위해 일본식 난간석을 해체하고 조선총독부 표지석을 제거했다. 범어사는 추후 일본양식의 보제루 및 경내 84m의 일본식 난간을 철거하고, 대웅전 석축 화단의 금속 세 그루를 들어내는 등 일제가 바꾼놓은 기암 배치를 전통 양식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글= 사진=박재원 기자

### 현대불교로 최상의 공양 法 보시를...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바르게 설하고 설명하고 고찰하며 바른 법을 온전히 지키는 법공양(法供養)이 가장 수승한 공양이라 하셨습니다. 한 정이 ‘현대불교’를 이웃과 어려운 이들에게 법보시하는 것은 다함께 깨닫는 세상을 만드는 형상 없는 불사(佛事)가 될 것입니다.

- ▶ 법보시 대상 ..... 군법당, 병원, 교도소, 각급 학교 및 공공 도서관, 관공서
- ▶ 법보시 후원 안내 ..... 법보시는 1구좌 1000원 이상 월 구독료는 5000원
-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2004-8200

## 불교노인요양원 삼천사·인덕원이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불교전문노인요양원 인덕원이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맞춰 해동의 영산으로 불리는 북한산 자락에 기존 건물을 신개축하여 국내 최대의 300명상 규모와 최첨단 시설, one-stop 토탈케어서비스를 갖춘 노인요양종합복지타운을 세워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인덕원은 분야별 전문교육과 불심을 두루 갖춘 150여 명의 전문 인력이 맞춤형 케어로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입소어르신들을 부처님처럼, 내 부모님처럼 섬깁니다.

인덕원은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보살행으로 실천하여 어르신과 가족의 아픔은 나누고, 행복을 만드는 불교전문노인요양원입니다.

■입소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과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을 판정받으신 분

■입소문의 : 02)385-8205, 02)3156-7500

**삼천사·사회복지법인인덕원**  
서울 은평구 진관동 250(은평뉴타운지역 내)  
www.idw.or.kr